신속하고 편리한 대출
동일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세대만의!
수완신도시 파크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8218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11월 18일 (음력 10월 21일) 화요일

탄력 받은 영산강 뱃길 복원

영산포~몽탄 하도 준설 등 내년 국비 285억 반영

전남도 '영산강 프로젝트' 본격화

내년도 국고 예산에 영산강 뱃길 복원 관련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되면서 전남도의 '영산강 프로젝트'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정부가 영산강 하도 준설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 상임위와 정부 부처,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영산강 하도 준설사업과 천변저류지 4개소(1천500만㎥) 조성사업 등에 내년도 국고 예산 285억원을 반영했다.

정부가 22km에 이르는 영산포~몽탄 구간의 영산강 하도 준설 사업(총 사업비 1천870억원)에 국고를 투입함에 따라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도 지난주 농림수산식품부가 요구한 영산호 배수갑문과 통선문 확장사업(총 사업비 1천730억원)에 대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예산 10억원을 반영시켰다. 또, 영산호와 영암호의 연락수로 확장 사업(총 사업비 2천640억원)을 위한 기본 조사비 20억원도 반영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촌공사는 영산강 뱃길 복원과 홍수통제를 위해 배수갑문을 현행 240m에서 480m로 확장하고 통선문도 6m에서 60m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영산강 수질 개선 등을 위한 계속 사업(1조3천억원)으로 내년도 예산 1천400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영산강변 도로 조성 사업(132km)과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사업에 각각 60억원과 38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은 물론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여야 간에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다 정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의원은 "영산강 뱃길 복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며 "영산강은 관광과 레저 분야 등 전남의 미래 비전을 지탱하는 허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영산강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산강 뱃길 복원의 환경문제 등을 둘러싸고 광주·전남지역의 여론이 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영산강 뱃길 복원과 관련, 환경단체의 이의 제기 등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社告

제44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 일 시 : 2009년 3월1일(일) 오전 9시
- 장 소 : 광주월드컵 경기장 ~ 남광교
- 종 목 :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 참가마감 : 2009년 1월 15일(목)
- 문 의 : 인터넷 홈페이지(http://marathon.kwangju.co.kr) 전화 (062) 220-0541
- 주 최 :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주 관 : 광주 육상경기연맹, 전남육상경기연맹

200개大 16만6,570명 선발

2009 대입 정시모집 … 광주·전남 총 9천여명

2009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이 총 16만6천57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관련기사 15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17일 2009학년도 정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올해 정시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은 총 16만6천570명으로, 지난해 18만1천14명에 비해 1만4천444명 줄었다. 이는 총 모집인원의 43.9%로, 지난해 47.9% 보다 4% 포인트 감소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전남대 2천200명, 조선대 1천710명, 목포대 787명, 순천대 858명, 광주대 470명, 광주여대 192명, 동신대 404명, 호남대 456명 등 총 9천여명을 선발한다.

현재 수시 2학기 전형이 진행중이므로 합격자의 등록 결과에 따라 정시모집 인원은 다소 늘어날 수 있으며 정시모집 인원이 변경됐을 때에는 대학별로 입학원서 접수 전에 모집단위별 인원을 수정해 공고하게 된다.

대학들은 정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면접·구술, 논술, 실기고사 등을 전형요소로 활용한다. 이번 정시모집은 수능을 100% 반영하는 대학이 지난해 11개교에서 올해 71개교(지방 분교 포함)로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수능 점수제가 부활하면서 변별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능 비중의 확대와 함께 정시모집에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지난해 45개교에서 올해 13개교(동일 대학이 2개 이상의 모집단위에서 각각 논술고사 치르는 경우 포함)로 대폭 줄었다.

군별 모집인원은 가군이 137개 대학 6만3천171명, 나군이 138개 대학 6만1천664명, 다군이 144개 대학 4만1천735명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가군, 나군, 가·나군 대학은 12월18일부터 23일까지, 다군, 가·다군, 나·다군, 가·나·다군 대학은 12월19일부터 24일까지이다. 대학에 따라 인터넷으로만 원서접수를 실시하거나 창구접수를 병행한다.

주요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univ.kcue.or.kr)에서 볼 수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F1, 국가 브랜드 가치 비약적 상승"

전남도, 문광부 부정 입장 조목조목 반박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전남도가 공식적으로 '반박자료'를 제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4면〉

전남도는 17일 문광부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F1대회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 자료를 내고, 문광부의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는 먼저 '재무적 타당성이 낮고, 국가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국제행사는 단순 재무성이 아닌, 경제성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포함한 공익적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면으로 계속〉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